

# 1인 주택·CCTV·먹거리·안부 확인... 5년간 5.6조 투입

## 서울시 '1인가구 안심정책' 추진

5년간 1인 맞춤형주택 7만호 공급  
오세훈 "실질적인 지원대책 방점  
1인가구 행복해야 서울시민 행복"

서울시가 혼자 사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없애고자 오는 2026년까지 건강, 안전, 고령, 주거 4대 분야에 5조 5789억원을 투입해 '1인가구 안심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홀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1인가구를 위한 공적 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돌보줄 가족이나 지인 없이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오세훈 시장이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있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올해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2022년에는 연 6회의 이용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시는 청년 1인가구에 저절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혼밥'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구역을 기존 15곳에서 2026년 51개소로 3.4배 늘린다. 향후 5년간 골목길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시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을 전송,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첨단 범죄 예방 설비다.

이와 함께 시는 혼자 사는 이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외로운 관리에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생활 습관을 관리해 고독감을 덜어주는 'AI 활용 중장년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술개발을 통해 감정 인식 및 대화 정확도를 높여 2026년까지 3만명에게 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시의 계획이다.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멘티·멘토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심리학 전공자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멘토단이 상담을 통해 1인가구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든든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앞으로 5년간 7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청년주택 5만731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1700호 등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는 청년·중장년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6년까지 13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이 나 홀로 가구를 위해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정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현재 여성가족 정책실, 복지정책실, 주거 부서 등 여러 군데에 흩어진 사업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전까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해온 사업을 오늘 한꺼번에 모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조직편재를 어떻게 바꿔야 1인가구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구상 중"이라며 "오늘(18일)은 일단 새해를 맞아 작년에 가장 강조한 1인가구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가판대·구뚝방 감소... 보행환경 개선

보도상 영업시설물 10년새 40% ↓  
"방치된 시설물 철거... 보행권 확보"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 매대, 구두수선대) 감소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과거 구두 굽을 갈거나, 버스 토큰, 신문·잡지 등을 판매하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와 운영자 고령화 등으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작년 12월 기준)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1552개다. 이는 전년 대비 119개소

감소한 수치다. 2011년(2550개소)과 비교하면 39.1% 줄었다.

서울시가 시설물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부진에 따른 영업포기가 46건(전체의 38.6%)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물 인근 편의점 증가, 신용카드 미사용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부진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 위축, 거리 유통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급락으로 영업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영업부진 다음으로 고령 운영자의 영업포기가 24건, 운영자 사망이 14건으로 각각 20.2%, 11.8%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시는 보행권

우선 원칙에 의거해 시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왔다"며 "운영포기, 허가취소 등으로 보도에 방치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2월부터 매각·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도시 미관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3년 주기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자산 조회를 실시하고, 자산가액 4억5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고 있다. 2022년 자산조회는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나서

민간사업 추진... 2028년 완공 목표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재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3개의 처리장을 최신 기술을 적용해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한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악취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초 조성 당시에는 의정부 외곽에 위치했지만 현재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조감도.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지함에 따라 악취 등 각종 민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하게 됐다.

사업 착공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이다.

시는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기별(연 2회, 상·하반기) 기 발생한 이자액을 사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3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오염물질 배출업소 144곳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단속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무단배출행위 등을 조사하는 활동이다.

먼저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4곳을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을 투입해 오염물질 무단방류 우려가 큰 사업장을 순찰한다.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 활동을 벌인다. 서울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58명이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순찰한다. 시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4 | 해질 / 17:41

1월 19일 (수) 음력 : 12월 17일

수도권 날씨 -7 ~ 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1/-1, 동두천 -9/-1, 가평 -11/-1, 양평 -9/1, 용인 -6/1, 평택 -10/3, 수원 -6/1, 인천 -6/-1, 파주 -12/-1, 백령도 -3/-1, 서울 -7/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항공업계, 5G서비스 이틀 앞두고 "항공대란 우려" 재차 경고 /사진 뉴시스  
▲중국, 올림픽 참가자들 식품불안·전화해킹 가능성 정면 반박

▲중국 '기후대응 역행' 작년 석탄생산량 역대 최대  
▲"홍콩서 동물-사람 간 코로나19 전염 의심 사례 나와"



▲WHO "영국, 터널 끝 빛 보인다"... 팬데믹 종식 가능성 시사 /사진 뉴시스  
▲세계은행 "개선되던 국가별 소득격차, 팬데믹에 다시 벌어질 듯"